

극본을 짜봅시다.

#1극본을 짜요.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학교 야자시간)

서울:우리 볼 끄고 무서운 이야기 하자.

라희: 그래!

태경: 아...난 좀 무서운데...

진아,솔: 아 별로 안무서워!

서울:그럼 나부터 이야기한다~ 별로 무섭진 않을거야..

서울: 세 명의 친한 무리가 있었는데 나 자신이 a고 친구 둘이 b,c라고 칠게.

요즘 들어서 b가 c를 자꾸 왕따 시키려하고 나랑만 다닐려고 해서 c가 너무 불편해하길래 선생님께 b가 c를 자꾸 따시키고 계속 (나)a 랑만 놀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 a야 무슨 소리야.. c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진아: 완전 무섭다!..

솔: 그럼 그 c는 언제 죽은 거지?..

태경: 그니까.. 이제 내가 말해볼게.. | ㄴ

#2 귀신이 나오다.

태경: 한 여자가 밤에 터널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터널 불이 다 꺼져서 당황했는데 그냥 신경안쓰고 가려고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탁’ 소리가 나서 터널을 지나고 나서

차 뒷면을 봤는데 어떤 손자국이 남아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주변에 있는 세차장으로 가서 뒤에 있는 손자국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근데 20분, 30분이 지나도 세차장 아저씨가 지우지 못했고 아저씨가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가씨, 이 손자국 밖에서 난게 아니라 안에서 난거예요”

솔: 와.. 진짜 무섭다.

진아 : 나도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 들어본적 있는데 다시 들어도 진짜 무섭다.

솔:라희야 너 안무서워?

라희: 응 그렇게 무섭진 않아.

서울: 라희 무서운 이야기도 잘 듣네

진아: 그러게. 아 맞다 나도 들은거 있는데

태경: 원데?

진아: 나도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귀신은 거꾸로 행동을 한데. 무섭지 않아?

솔,서울,태경: 와.. 이걸 진짜 무섭다.

라희: (거꾸로 손벽을 치며) 짹짹 짹 짹 진짜 재밌다 ㅋㅋㅋㅋㅋ 이런거 어디서 봐?
너무 웃긴데? 더 얘기 해줘 ㅋㅋ 너무 재밌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태경,솔,진아,서울: ..? (라희를 쳐다보며)

서울: 잠깐.. 라희야 너 왜 박수를 거꾸로 쳐..?

진아: 라희 다리가 왜 반대로 되어있지..?

(정적)

라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들아 너희는 이게 안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너무 재밌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 애들아 우리 여기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

(정적)

(끝)

#4

#5

#6